

코로나에도 벤처 투자 ‘호황’… 펀드 결성액 ‘사상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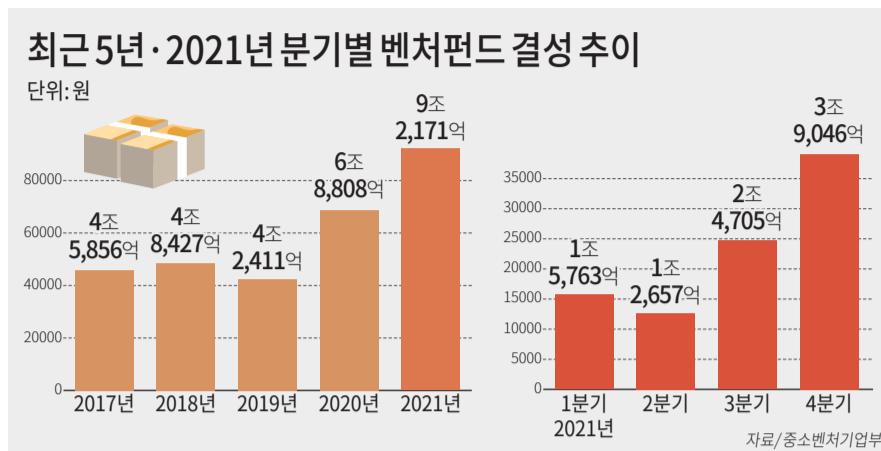
**중기부 지난해 벤처투자조합 집계
9조2171억… 전년比 34% 증가
신규결성 펀드도 2배 가까이 ↑
‘벤처투자법’ 시행 효과 등 영향**

벤처펀드 결성액이 지난해 사상 최초로 9조원을 돌파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10조원을 훌쩍 넘어서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벤처투자조합 결성 실적을 분석한 결과 역대 최대인 9조217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6조8808억원을 기록한 2020년보다 1년새 2조3363억원(34%)이나 늘어난 액수다.

새로 결성된 벤처펀드 수도 종전에 가장 많았던 2020년의 206개 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404개로 집계됐다.

벤처펀드 결성액은 4조5856억원(2017년)→4조8427억원(2018년)→4조2411억원(2019년)→6조8808억원(2020년) 등을 기록하며 최근 2년간 크게 증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면 서 벤처투자자 저변이 크게 확대되는 등 ‘벤처투자법’ 시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면서 “벤처펀드당 평균 결성액은 펀드수가 크게 늘면서 2020년 당시 287억원에서 지난해엔 228억원으로 감소한 것도 한 예”라고 전했다.

▲ 2017년 10월 당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자본금 50억→20억 완화 ▲ 2020년 8월 벤처투자법 시행으로 창업기획자의 벤처펀드 결성 허용 ▲ 유한책임회사(LLC)의 펀드 결성요건 완

화 등의 규제 완화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새로 결성된 벤처펀드를 결성 규모별로 나눴을 때 100억원 미만 소규모 펀드가 172개로 전년의 67개보다 2.6배나 증가했다. 100억 미만 소규모 펀드는 전체의 42.6%를 차지한다.

게다가 등록 3년 이내의 신생 창투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펀드가 100억 미만 소규모 펀드 가운데 58.1%(100개)를 차지할 정도로 이들의 소규모 펀드 결성이 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창업기획자의 벤처펀드 결성도 다양하다.

2020년에 창업기획자가 운영하는 벤처펀드가 처음으로 11개 결성된 이후 지난해에만 41개사로 3.7배 증가했다. 이 기간 관련 금액도 546억원에서 3786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새로 결성한 벤처펀드의 출자자 현황을 살펴보면 모태펀드 등 정책금융 부문 출자가 약 2조 7429억원(29.8%), 민간부문 출자가 6조 4742억원(70.2%)으로 민간부문이 월등히 많았다.

모태펀드 비중은 2020년 18.2%에서 지난해엔 17.3%로 낮아졌고, 특히 2017년과 비교하면 7.9%포인트(p)(25.2%→17.3%)나 낮아졌다.

반면, 민간출자는 2조원 가까이 늘어 전체 벤처펀드 결성증가액(2조3000억원)의 대부분인 약 81.2%를 민간자금이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모태펀드는 최근 5년간 전체 펀드 결성액에서 모태펀드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중뿐 아니라 모태펀드가 출자

한 자펀드가 차지하는 펀드수와 결성금액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자펀드 수 비중은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졌다.

한편 지난해 결성된 1000억원 이상의 벤처펀드는 21개로 집계됐다. 결성금액은 총 3조570억원이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2021년 벤처펀드가 2년 연속 최대실적을 경신하며 9조원을 돌파한 것은 예상 을 뛰어넘는 성과로, 특히 모태펀드의 비중은 낮아지면서도 제도적인 규제 완화로 벤처투자자 저변이 확대되고 민간 자금이 크게 증가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중기부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제2벤처열기를 더 확산하되 민간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지속하기 위해 스타트업이나 투자자들 모두 벤처투자 생태계의 건전성에도 신경을 써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중企 옴부즈만 “규제개선 과제 77.6% 이행” 창진원, 스타트업 결제·자금관리 지원

2020년 2103개 중 1631개 완료
추가 이행시 이행률 80% 넘길 듯



부즈만이 지난 2020년 관계기관으로부터 규제개선 회신을 받은 2103개 과제 중 이미 이행이 끝난 1246개 과제를 제외한 857개를 대상으로 지난 해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진행됐다.

이행률은 77.6%이지만 아직 법령 개정 작업 등 추진 단계에 있는 과제 194개가 남아있어 향후 규제개선의 이행률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옴부즈만은 법령개정·연구용역 검토 등 개선 추진 중인 과제가 순차적으로 개선 완료될 경우 이행률이 80%를 넘

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옴부즈만은 개선을 추진 중이거나 지난해에는 사안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행 외부를 확인하고 조속한 이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제를 개선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대면 협의를 추진하고, 그래도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엔 옴부즈만위원회 개최를 통한 규제개선 ‘권고’의 결론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은 “규제개선이 형식적 답변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도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계속 점검하고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금융결제원과 공동지원 업무협약

창업진흥원과 금융결제원이 스타트업들을 위한 결제·자금관리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

17일 창진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금융결제원과 ‘창업촉진 및 스타트업 성장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창업기업이 결제·자금관리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금융결제원은 창진원의 지원 및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아 금융결제원 정기 자동 입출금 서비스(CMS)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서비스(TrusBil 1)를 1년간 무료로 제공한다. 아울러 온·오프라인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이용 환경 구축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 문의·가입부터 사후관리 까지 통합하는 스타트업 원스탑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창업기업들이 본연의 사업 성장에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도록 할 예정이다.

창진원 관계자는 “두 기관은 전담인력을 배치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 및 기획해 스타트업들에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비즈니스 관리를 보급·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인공지능 청년 전문가 키운다

‘이어드림 학교’ 교육생 200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공지능(AI) 기술 실무인력을 육성하는 ‘이어드림 학교’ 교육생 200명을 모집한다.

17일 중기부에 따르면 18일부터 2월 18일까지 한 달간 모집하는 이어드림 학교 교육생은 지난해엔 만 29세 이하였지만 올해부터는 만 39세 이하로 대상을 늘렸다.

이 과정은 총 10개월 동안 AI 관련 학

과에서 배우는 기초이론부터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활용 사업(프로젝트)까지 집중 교육한 후 창업기업에 취업까지 연계한다.

올해 이어드림 학교는 지난해 청년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정규 사업으로 전환했다. 선발규모도 기존 100명에서 두 배로 늘렸다.

특히 MZ 세대의 다양한 수요에 맞추기 위해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우선 지방 거주 교육생과 재택교육

희망 교육생 등을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과정을 신설한다.

새로 도입한 실전문제 해결과정은 창업기업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과제를 팀 프로젝트로 해결하는 것으로, 프로젝트 기획부터 모델 설계 및 구축까지 전 과정을 교육생이 직접 수행하며 실무역량 및 협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현장밀착형 교육으로 진행한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AI 기술인력을 필요로 하는 창업기업과 교육생 간 일자리를 연결하는 ‘채용연계 시스템’(청년인재 이어드림)도 운영한다.

/김승호 기자

홈앤쇼핑, 린나이와 보일러 렌탈 판매

홈앤쇼핑이 린나이와 손잡고 업계 최초로 보일러 렌탈 방송을 했다.

홈앤쇼핑은 ‘린나이 콘덴싱 보일러(사진)’ 최고급 모델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방송을 기획해 17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을 탄 최신 모델 ‘친환경 I OT(사물인터넷) 콘덴싱 보일러(PJX-9000 모델)’ 3종(사진)은 에너지 효율 1등급이다. 추가 절약모드에서 최대 14% 가스비를 절약할 수 있다.

친환경 인증으로 탄소 배출 최대 78%, 질소산화물 최대 88% 줄여준다.

Rinnai



99m²(30평) 이상~132m²(40평) 이하에 최적화 된 상품을 월 3만9400원~4만 1900원(48개월)의 가격으로 만나 볼 수 있다. 제휴 카드결제 시 1만3000원 청구할인을 받아 월 2만원대로 이용이 가능하다.

/김승호 기자

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산재·노동 전문’ 검사장 공모… 검사들 ‘전례 없는 일’ 반발
▲ 노동부, 현대산업개발 전국 12개 시 공현장 특별감독

/사진 뉴시스

▲ 민주노총 “사망사고 인천 공사장에 관리감독자 없었다”
▲ ‘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채용’ 혐의 공무원 “범죄사실 인정”



▲ “수요시위 적극 보호해야”… 인권 위, 경찰에 긴급구제권고
▲ 서울시, 코로나로 고용불안 버스 운수종사자에 50만원 지급

/사진 뉴시스